

송도에 글로벌 쇼핑몰 짓는다

2011년 초 송도 신도시에 국제 쇼핑몰이 들어선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거리형 복합 쇼핑몰이다.

글 엄지현 기자·사진 김현동 기자



1974년 호주 생, 호주 본드대 법학과 졸업, 호주 매쿼리 은행, 모건스탠리 부사장, 터브먼 아시아 사장

“2011년 초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에서 세계적인 쇼핑몰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모건 파커(Morgan Parker·34) 터브먼 아시아 사장이 8월 6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송도 국제 쇼핑몰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터브먼 아시아는 글로벌 쇼핑몰 개발회사 터브먼 센터(Taubman Center)가 2005년에 세운 자회사로 홍콩에 본사가 있다. 터브먼 아시아가 첫 사업 지역으로 선택한 곳은 한국 송도 신도시와 마카오 두 곳이다. 2011년 초 한국엔 송도 국제 쇼핑몰을, 마카오엔 스튜디오 시티 쇼핑센터를 열 계획이다.

파커 사장이 밝힌 송도 국제 쇼핑몰의 컨셉트는 사교(쇼핑), 놀고(엔터테인먼트), 쉬 수 있는 복합쇼핑몰이다. “쇼핑몰은 단순히 물건만 구매하는 곳이 아니죠. 송도 쇼핑몰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쇼핑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송도 국제 쇼핑몰은 건축 설계부터 남다르다. 기존 백화점은 5층 이상의 고층 쇼핑몰로 층마다 수십 개 브랜드 매장이 들어서 있다. 송도 국제 쇼핑몰은 연면적 13만5000㎡(약 4만840평)으로 지하 주차장과 지상 2층이 전부다.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 수평 구조의 쇼핑몰로 고객의 동선 거리를 최대한 줄였다. “쇼핑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운데 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매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은 쇼핑몰 안에 들어서면 마치 매장이 길게 늘어진 거리에 서 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현재 파커 사장은 송도 쇼핑몰에 입점시킬 브랜드 선별에 고심 중이다. 그는 “프라다, 구찌, 아르마니 등 명품 브랜드와 한국에서 인기는 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포에버21, 에버크롬비&피치 등 다품종을 소량만 생산하는 유명 의류 브랜드 입점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어떤 브랜드 매장을 입점시키는 게 쇼핑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터브먼 센터는 50년 이상 루이비통, 버버리, 샤넬, 아르마니 등 세계적인 명품업체와 좋은 거래를 유지했기 때문에 다른 쇼핑몰보다 브랜드 입점에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파커 사장은 송도 국제 쇼핑몰에 약 150개 매장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내에선 롯데쇼핑이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백화점을 열 계획이다.

파커 사장은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아이스링크와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갖출 계획이라고 들려줬다. “아이스링크는 패션쇼나 콘서트 장소로도 이용할 생각이예요. 이 밖에 1200석의 푸드코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송도 국제 쇼핑몰은 지하 주차장 건설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 지상 건물 공사는 9월부터 들어간다.

호주 출신인 파커 사장은 매쿼리 은행과 호주 부동산 업체인 렌드리스, 모건스탠리 등을 거치며 부동산 개발·투자에 실력을 쌓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다. **F**